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한인회보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John K. Oh - Publisher
Pupshin Park - Editor
(206) 362-4500

FEB. 1985

1984년 일반인에 대한 종합 소득세 보고를 위한 기초상식

제일 먼저 누가 꼭 종합 소득세를 법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다음 열거합니다.

1. 독신인 경우 총봉급, 이자, 실업수당 및 기타 수입이 \$3,300 이상.
2. 부부인 경우 총봉급, 이자, 실업수당 및 기타 수입이 \$54.00 이상.
3. 부부일지라도 1984년 12월 31일 부로 같이 기거치 않았을 경우는 위에 열거한 액수가 \$1,000 이상.

이상의 경우에 해당치 않을지라도 개인 영업이나 세금을 공개치 않은 수입이 있을 경우, 집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등, \$400 이상은 누구나 보고해야 하며 개인 영업을 하시는 분은 손해를 보셨다 할지라도 꼭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65세가 지나서 사회 보장연금을 받으신 액수도 종합 소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사항으로 1984년 개정 되었으니 유의토록 하여야 합니다.

세금 공제 대상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방 조제된 약값, 건강 보험비, 병원비, 의사, 치과비, 의사나 병원에 가기위한 왕

복 자동차 마일수, 안경, 이 교정비 등 가옥세, Sale Tax, 자동차 산 sales tax, 자동차 번호판 갱신 도로세, 각종이자 지불된것(신용카드 및 은행에 지불된 이자, 월부 구입된 물건에 대한 이자 지불 및 기타 이자.), 교회헌금, 한인회비 및 기타 자선단체 기부금 및 물건값, 유니온 비, 종합 소득세를 보고하기 위한 제리사 비용, 직업을 위한 면허증 비, 각종 제복비(간호원, 경찰 등), 신발, 또한 직업상 위험 방지를 위한 신발 기구 및 기타 장비, 금고 임대료, 타야소 비용, 직업을 위한 이사 비용, 가옥에 열 누출 방지를 위한 이중창설치비, 인슐레이션(insulation) 비등, 개인 연금지불(IRA)등이 세금 보고시에 공제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외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다 기록할 수 없는 관계상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끝을 맺읍니다.

기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인 여러 제리사들이 있으니 전화로 문의하시어 세금 보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이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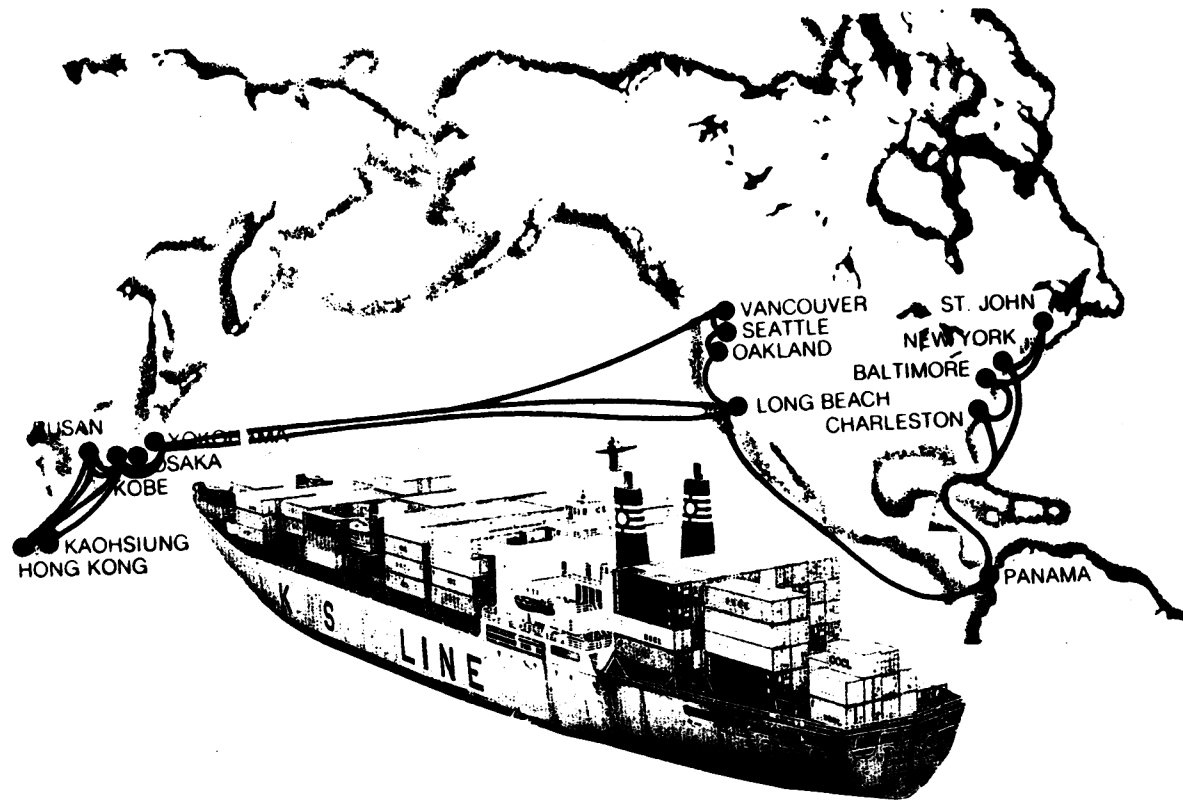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3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 | | |
|----------|----------------|
| 롱비치 지점 | (213) 437-0431 |
| 뉴욕 지점 | (212) 422-5959 |
| 샌프란시스코지점 | (415) 777-2600 |
| 시카고 지점 | (312) 693-7500 |
| 휴스턴 지점 | (713) 227-3261 |

권두언

『 이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

편집부 박법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왔던 겨울이 지나고 희망에 찬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포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과 함께 희망찬 기대가 가득차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역시 이번 한인회의 편집부장의 직책을 맡고보니 여러분과 함께 더욱 더 열심히 노력 할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른 미주 도시의 한인사회와 달리 시애틀의 한인 사회는 폭넓게 그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교포 여러분의 활동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앞으로 그 기대가 큼니다. 지난날 교포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 나간 결과가 현재 우리의 한인 사회가 시애틀에서 어떤 소수 민족보다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그런 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포 여러분의 한인 사회는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참여로써 이끌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수준에 차 있음은 깊이 인식되어 지는 바입니다.

교포 여러분이 교포 여러분의 한인 사회

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냉담하게 볼수만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힘차게 한인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포 여러분의 권익과 화합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한층 더 나아가 새로 이민오는 교포 여러분의 부모, 형제분이 지난날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없이 미국생활을 시작할수 있도록 우리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한인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제분들과 고국에 계신 친지 분들에게 우리의 한인 사회를 자랑스럽게 보여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한인회에서 한 임원으로 일하다보니 그동안 한인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역시 여러 선배님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경주에 부끄럼없이 대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교포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교포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희망차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백 소아과

Kiwan Paik, M.D.

(206) 365-4533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5:00
토요일 10:00-1:00

※ 정문에서 왼쪽 첫번째 단층건물

PAIK'S PEDIATRIC CLINIC
NORTHWEST PROFESSIONAL CENTER
1570-115th St #16
Seattle, WA 98133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오 준 결

다사다난의 1984년을 보내고 희망의 을
축년을 맞이하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우리는 1985년의 한해를 바라보며 일년한
해의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금년
한해는 교포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하는 결실의 해가 되여지기를 바랍니
다.

금년 한해를 말아서 일올하는 저희 임원
들과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회가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서로 상부 상조하는 명랑
한 분위기의 한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리하여 한인회는 소수 민족의 단체로서 타
민족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교포사회의 참여는 큰힘을 모
을수 있으며, 단합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익
을 옹호하여 타민족과 이 미국이라는 대국
에서 평등의 자유를 누릴수 있으며, 또한
타민족으로 부터의 무관심의 형틀에서 벗
어나 당당한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서 깊이
이곳 사회에 뿌리를 박고살수 있는 기점이
될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이사님
을 비롯한 온 임원들께서 바쁜 시간을 활여
하고, 또한 봉'하기를 다짐하고 일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보다 모든 사회생
활에 바빠 지내오고 있는 이사 및 임원입니
다만, 큰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
주는 원기소가 되어, 교포들의 바라는 일
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우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뜻과 의지만을 가지고 한인 사회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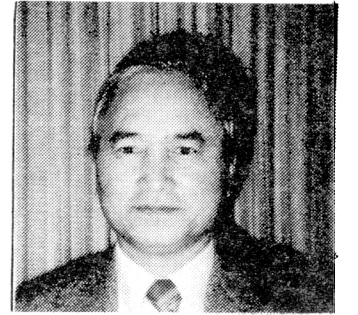
낳은 한인 사회로 발전하기 어려움을 느끼
는 우리 임원들은 무엇보다도 한인회의 운
영비를 담당하는 기금이 많이 모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한인회비 만은 꼭 납부할수 있게 되기
를 바랍니다.

상부 상조하는 명랑한 사회는 불신풜조
의 사회적인 불협화의 악덕을 몰아내어 서
로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한인 사회가 되
리라 믿습니다. 서로간의 존경심과 사랑이
오고 가는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수 있어, 한인 사회는 보다 명
랑하고 밝은 빛이 비쳐질 것입니다. 이 아
름다운 존경과 사랑의 열매는 떨어지는 곳
곳마다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에게 크게 기
여하여, 초기 이민자의 개척정신으로 기리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은 티가없고 순진
하여 오염에 물들기 쉬운것을 아는 우리는
좀더 잘가꾸고, 가꾸어 이들로 하여금 하늘
높이 이 미국땅에 태극기를 날려 우리 민족
의 긍지를 살릴수 있는 큰 동량재를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 초기 이민자들이 할일입니
다.

끝으로 1985년의 뜻깊은 한해를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인내로
참으며, 적극적으로 교포사회에 참여하여,
서로 상부 상조하여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교포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
랍니다.

다시한번 맞이하는 교포 여러분 각 가정
위에 행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
다.



이사장 한만섭

교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유의 땅을
찾아온 것은 여러분의 생을 보다 즐기는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땅에서
즐겁게 살려면 돈도 많이 벌고, 쓰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도 높이는 일 등등의 소원을 가질 것입
니다.

특수한 개개인은 이러한 소원을 쉽게 이
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민 대중은 이러한
소원을 위해 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
라 생각합니다.

이 자유의 땅 미국의 제도는 어떤 사회적
목적의 성취하기위해서 개개인의 노력보다
는 단체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
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의
존재 가치도 미국사회에서 우리 한인 교포
개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
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한인회가 바람직
합니다. 교포 여러분! 85년도에는 힘찬 한인

회를 만들어 냅시다. 많은 교포들이 참여하
는 한인회를 이룩시다.

다양성이 특징인 이 미국사회에서 교민
시회의 『단결』이란 바라기 힘들겠지만, 의
견이 서로 다른 개개인 또는 그룹들이 상호
협조와 조정(reconcile)을 하며 융화하면 강
한 한인 교포 사회가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
다. 따라서 활기있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상호 신뢰하는 풍조를 기릅시다.

저는 조화로운 교포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우려구 이사직을 맡았읍니다. 본의 아니
게 「감투」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감
투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과 함께 즐길수 있
는교민 사회 건설에 맨발로 뛰고저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보다
오회장을 더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미국땅에서 더 즐거운 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교포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삼일절 기념식 및 영화상영안내

올해 제 76회 삼일절을 맞이하여 한인회
주최로 다음과 같이 기념행사를 갖겠아오
니 많은 교포 여러분의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5년 3월 2일(토) 오후 7시

장소 : 한인회관 내 극장(700명 수요가능)

영화 : 제목-물레야 물레야(84년도 칸느영
화제 출품작)

주연-신일용, 원미경

감독-이두영

제작-한림 영화사

입장료 : 무료

시민권 강좌안내

전 한인회 이사장이고 현재 100여명의 교
포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회에서 영어 강좌
를 해오신 김현중 선생께서 교포 시민권 취
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료로 강의를 시
작하오니 남녀 노소 불문하시고 많은 참여
를 바랍니다.

시 간 : 오후 7시~8시 30분(화), 오후 4시~5
시 30분(일)

장 소 : 한인회 사무실

연락처 : 김현중(774-3839, 774-7828)

『신년사』

희망의 새해 198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교민들의 행복하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마련합니다만, 일년이 거의 지날때 돌이켜보면 별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달력을 만들어 새날이다, 새달이다, 새해다라고 하며, 그런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인회보의 부탁으로 새해에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몇가지 꼭 꼭 드려야 하는 것은 첫째, 한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애틀 지역에는 대략 1만5천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인회 정기 총회시 보고에 의하면 약150세대 즉, 천명 미만의 교포가 한인회비를 납부 했더니 전체의 7% 정도가 한인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생업이 바쁘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조국, 내고향을 잃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이상 위와 같이 저 조한 참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회는 바로 여러분의 『모임』이요, 여러분들이 지탱해 가야할 교민들의 순수한 조직입니다.

좀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여러 교민들의 참여가 특별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한인회나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2세들을 위한 일이 전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이민 목적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살기좋은 이곳에서 살면서 어린 2세를 올바르게 잘 교육 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 모두가 시민권을 얻어 『좋은 미국인』이 되고 저 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녀들은 한국계 배우자에게 결혼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들이 이성이나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베풀어 주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한인회며, 교회등 여러 기존 조직 및 기관이 이 방면에 신경을 써서 우리



주 시애틀 총영사 안세훈

자녀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길수 있도록 『젊음의 광장』을 마련하도록 주력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2세들이 모여서 그들의 장래를 이야기하며 즐길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곁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여 『새로운 역사』를 꾸미도록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 한인회에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가진바 있는데 이느 참 좋은 시도로서 금년에는 이같은 행사가 만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지역 한인사회를 순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교포가 『먹고사는 갈급한 단계』는 벗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남을 이해하고, 내스스로 이 토착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 없나? 찾아서 헌신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주장이나 의견보다 남의 말을 듣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각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끔 편견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는바, 금년에는 모든것을 『사랑』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겸허하게 남을 대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였든,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 남겨주기 위하여 더 결심을 새로히 하고, 더 열심히 일해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1985년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회장 오준걸



부회장 박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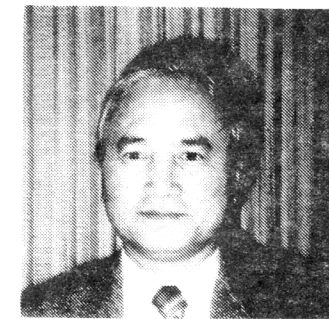
부회장 Myrna k, Lee

총무 윤병설
경로 천재학
교육 Kay Mullins
부녀 엄은숙

섭의 신호범
청년 윤홍남
체육 백인홍
문화·예술 박창모

홍보 이성훈
편집 박법신
재무 윤광남

-1985년 한인회 이사장 및 이사



이사장 한만섭

부이사장 홍인표

이사 김홍식
곽중세
곽진문
이순모

오준걸
Myrna K. Lee
박태호
오계희

각종안내

한인회보 이용안내

한인회보는 교포 여러분들에게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회보입니다.

교포 각 개인들의 구인, 구직, 구매 활동 뿐만 아니라 상공회, 교계, 동문회, 기타 각 친목 단체들의 활동 상황등을 한인회로 알려주시면 가능한한 모두 회보에 기재함으로써 시애틀 지역의 모든 교포들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교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광고신청안내

제한된 광고 접수에 따라 한인회보에 광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신후 한인회로 구비물을 우송하여 주시면 우선 접수 순으로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광고 접수는 매 짝수달 15일에 마감하겠습니다.

규격별 광고료

내부 : 전면-\$150, 1/2면 \$80, 1/3면 \$60, 1/4면 \$40, 1/8면 \$20

외부 : 뒤표지 전면 \$300, 뒤표지 안쪽 전면 \$200, 앞표지 안쪽 전면 \$250

구비물

1. 광고 견본 또는 도안. 2. 광고료

접수처 : Sea-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Phone 362-4500)

House for Rent

145th North에 위치한 2층집. 방 4개, 화장실 3, 벽난로 2, 리빙룸 2, 넓은 잔디 렌트합니다. moving sale도 합니다. (365~0468)

북부 시애틀 한인축구회 회원모집

교포들의 심신 단결을 위하여 매주말 아침 모임을 갖는 북부 시애틀 한인 축구회에서는 수시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자격 : 30세 이상의 워싱턴주 교민
연락처 : 에버렛 252-6744(심상국)
시애틀 363-6110(심재환)
타코마 922-5962(김준택)

동문회 소식

경희대학교 동문회에서는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기 위하여 매월 셋째 토요일 모임을 갖는다. 동문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연락처 : 회장 : 송계석 778 - 5721
총무 : 백웅기 525 - 8334

개업

시애틀에서 약 10여년간 거주해온 천정민씨가 지난 1월 제일 자동차 sale and leasing 회사를 UW근처에 설치하였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인들에게 많이 환영받는 방법으로 어떠한 종류의 차들도 제일 자동차를 통하여 구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전화는 632-240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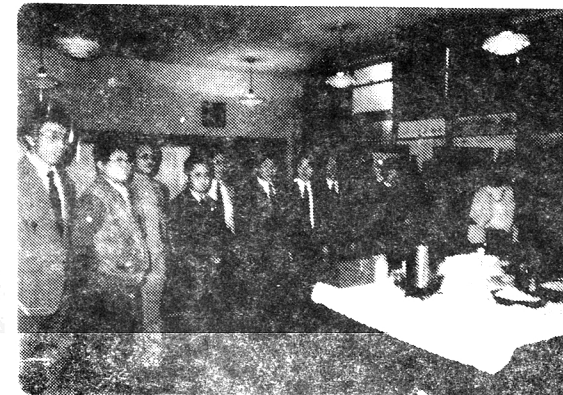
한인회 활동

임원회의

●신년도 첫 임원회의가 1월5일 오후 6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각 임원들의 인사 소개후 오준걸 회장의 사회로 신년도 한인회의 방향 설정과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후 신년도 한인회의 방향을 과거 한인회에서 기록하여 놓은 업적을 계승하면서 각 부서장의 계획하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회장단에 제출하여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후 이사장 회의에 의결키로 하였다.

오픈 하우스

●한인회관의 오픈 하우스가 지난 1월19일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 네이탄헤일 교교안에 자리한 새 한인회 사무실은 넓은 축구장과 수배석의 강당, 그리고 각종 오락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각종 행사에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이곳을 방문한 교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보내면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새로운 주소는 11051 34th Ave, NE #210, Seattle, WA 98125.



영사관 방문

●85년도 한인 회장단은 1월 17일 오후 5시 주 시애틀 총영사관을 공식 방문했다. 오준걸 한인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안세훈 총영사 이하 임직원들께 노고를 치

하하면서 금년도 한인회의 사업개요와 상호 협조 문제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안세훈 총영사는 영사관이 이곳에 상주케 될수 있는 것도 모두 한인 여러분의 이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가능한것이고 한인사회의 발전이 곧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기에 교포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여러 임원들이 이 한인회에 봉사키로 결정한것에 대해감사한다면서 한인회의 목적과 영사관의 목적은 결국 상통하므로 미국 사회에서의 확고한 한인 사회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민국 방문

●오준걸 회장은 임원 3명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이민국장 로날드 브룩스를 방문하고 약 30분동안 이민국과 한인회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안세훈 총영사도 배석하였다. 오준걸 회장은 한인 사회의 현황과 한인회의 제반 활동을 설명한 다음 한인 사회와 이민국과의 협조 문제를 논하였다. 로스엔젤레스, 뉴욕에 이어 세번째로 업무가 많은 시애틀 이민국으로 부임한지 1년 반되는 브룩스 이민국장은 연간 백만여명의 방문객, 이민객들이 씨택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는데 아직 한인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혹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조 하겠다며 오는 5월 초순의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할것을 약속 하였다.

주정부 방문

○오준걸 한인회장, 박태호 부회장, 신호범 섭외부장 및 안세훈 주 시애틀 총영사는 1월 24일 오전 10시 올림픽아에 있는 주정부를 방문하였다.

이날을 맞아 주정부 청사에는 한미 양국기와 워싱턴주 국기가 하루종일 게양되었고 수년간 한국에서 크리스천 헤랄드의 편집국장으로서 근무한적이 있는 윌리엄 애쉬베리 의전국장의 안내로 부스 가드너 주지사, 존 세버그 부지사 그리고 윌프 먼로 주총무처장관을 차례로 면담하였다.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오회장은 워싱턴주와 한국과의 상호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면서 이곳의 한인사회 발전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가드너 주지사는 어느 소수 민족보다도 워싱턴주와의 무역 관계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단체와 먼저 만나게 되고 거기다가 취임후 첫번째로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하였다. 또한 가드너 주지사는 한국의 날을 의회가 끝나는 5월 초순경에 공포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인회와 유대관계를 깊이 하자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미 TV, 한국일보 기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은 『한국일보』사에서 제공

조찬기도회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교포 사회의 성장을 위하여 한인회가 마련한 1985년도 조찬기도회가 지난 2월9일 아침 8시 제일 장로교회에서 거행되었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서도 안세훈 주 시애틀 총영사, 김상구목사 외 시애틀지역 교역자들을 포함한 여러 내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병실 한인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인 김성목목사의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만이 축복을 받게 되므로 이민 생활에서 갖가지 어려움에 당면하는우리 한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간구하자고 말씀하셨다.

이어 김상구, 정관봉, 그리고 윤한두 목사의 연속적인 기도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교포사회와 교민을 위하여』, 『한인회를 위하여』라는 간곡한 기도후에 오준걸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통하여 훗날 우리 이세들에게도 긍지와 존경심을 심어줄수 있는 한인회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명랑하고 발전하는 한인회의 전통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박영희 목사의 마지막 축도로 끝난 이날 기도회는 새해를 맞아 조국과 이곳 교포 사회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교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정돈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도 재외교포학생 하계 학교 입학안내

본국 정부에서는 교포학생을 위하여 하계 학교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오니 희망 학생은 영사관으로 신청바랍니다.

기간 : 1985년 7월 2일~7월 15일

대상 : 교포 중·고·대학생(5학년~대학생)

접수처 : 주시애틀 총영사관(441-1011,1012)

업무 인수 인계

○신 구 한인회장 업무 인수 인계가 1월 16일 오후 7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신 구 회장단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신임 오준걸 회장은 84년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오계희 회장 이하 전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도 차기 회장단에게 무엇인가 남겨 놓을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업무

인수 인계후 신년도 임원들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상영될 영화 『돌아오지 않는 밀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내용은 이준 열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겠지만 이념을 달리하는 이북에서 보내온 필름이라는 점에서 이곳 교포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리 한인회 이름으로 학교측에 하의 서한을 발송기로 결정했다.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7, 1985

Dr. Kenneth Pyle
Director
The Henry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 98195

Dear Dr. P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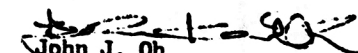
We have learned that the Henry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s sponsoring the showing of a Korean movie, "The Hero Who Never Returned," on January 26, 1985, 7:00PM at Kane Hall 125. This film was produced in North Korea in the Korean language and has no English sub-titles. In evaluating the qualities of this film, it is neither considered classical nor of academic value. It is a simple drama played by a South Korean star who was kidnapped into North Korea. The film conveys propaganda against South Korea in support of communist ways and North Korea.

We recognize that we have no right to interfere with your academic program or a classical film presentation. Nevertheless, we cannot understand why a great institution such a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would sponsor a movie that belongs in a local commercial theater and furthermore, without English sub-titles, hardly any student on campus except Koreans could understand. However, because of the star and the nature of story, it has created a wide degree of controvers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es concerning its political views. Therefore, we register a strong protest against the University for utilizing a public facility to create a division of interest among an ethnic group - the Koreans.

We request, therefore, your serious consideration before showing this film. If we could be of any help in translating the film or offe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film, please call on us. Also we would be most happy to provide the University with Korean classical or art films that could be an addition to your classical film serie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this matter.

Sincerely yours,


John J. Oh
president

c.c. Mr. David Cordell
Professor Bruce Cummings

공 고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기미년 독립선언|한지 어언 66회 삼일절을 맞이하여 경축 기념식을 거행코져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뜻깊은 기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식후 영화 “물레야 물레야” (국제영화제 출품작) 를 상영 하오니 가족동반하시어 즐거운 관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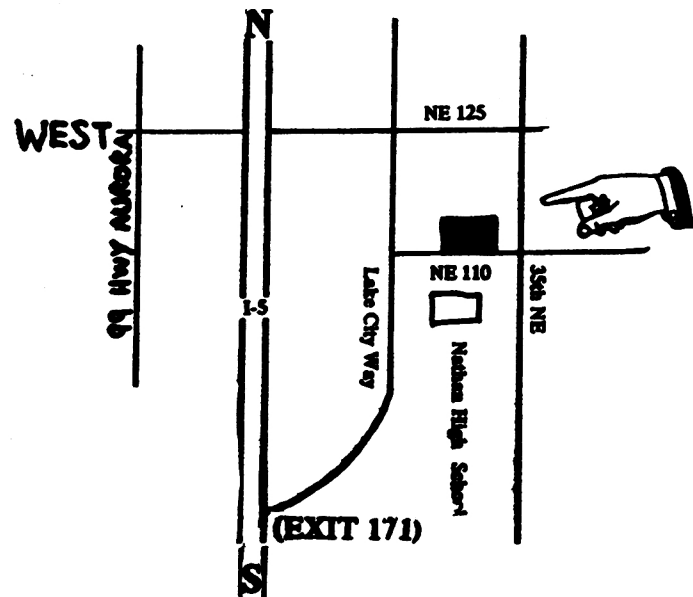
장 소 : 한인회관 (Jane Adams Building)
11051 34th Ave. N.E.

시 간 : 1985년 3월 2일 (토) 저녁 7시

1985년 2월 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오 준 결

*약도참조



이 동 자 동 차 정 비

교민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금번 본인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최초로 이동식 자동차 정비를 개업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간단한 한통화의 전화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친절과 신용

철저한 정비로써

성심을 다하여



국내차 및 외국차 일체 서비스

241-2618·775-2622

봉사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임 무 배상

현대식품

*집에서 만든 찹쌀고추장 · 조선간장 · 된장

*소문난 김치 · 밀반찬류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762-4792

10402 16th AveS.W.
Seattle, WA 98146

-1985년도 한인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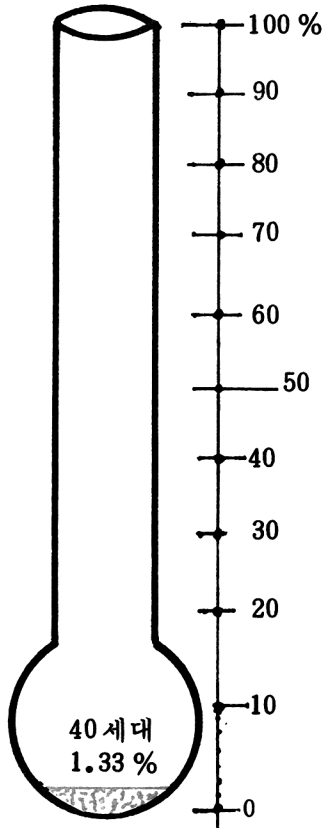
김현길	\$50	강용환	20	HwanJa Perreault	20	무명	4
심재환	10	김정부	20	Hae Sik Smith	20		
코디류	10	박영희	50	Im Suk Vann	10	합계	1,364.00
김준택	10	김원근	20	Myrna K. Lee	100		(2월9일 현재)
심상국	10	최용걸	20	Elizabeth Lee	10		
이정언	20	김동호	20	Jessica Lee	10		
김종구	50	신호범	100	백기환	20		
윤병설	20	김영남	20	이동립	30		
박법신	20	박길용	10	이창수	10		
박창모	30	윤청자	10	김상구	30		
백인홍	30	이인	20	김옥희	20		
심상국	50	오준걸	250	최상환	20		
구상모	50	윤광남	50	김교선	100		

Grand Opening Specials

NEW CHINA RESTAURANT
MANDARIN CUISINE

● 한국식중화요리
피로연환영
엽가봉사

8825 Evergreen Way, Everett
OPEN 7 DAYS! 11:00 ~ 10:00
MON-FRI: 11:00 A.M.-9:30 P.M.
SAT-SUN: 4:00 P.M.-10:00 P.M.
353-9445



총 3,000세대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비
납부상황(85,2,9 현재)

-한밤의 낙서-

나는 가끔 내자신을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미운 오리새끼』와 비교를 해본다. 나도 그 미운 오리 새끼의 하나 일지도....

불의의 사고로 오리의 새끼로 발견된 그 백조는 다른 오리들로 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나중에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된다. 방랑도중 여러 동물들과도 만나고 여러 난관에도 부딪친다. 또 추운 겨울도 만난다. 그러나 어느 이른 봄날, 녹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며 겸손해 하는, 인간성이 부여된 미운 오리새끼를 난 무척 좋아한다.

우리의 『사춘기』 정신과 육신의 성장 어렸을때는 관심에 두지도,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여 계속 그 무수한 자문자답과 고민, 걱정으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한다. 전에 그냥 스치던 말, 장소, 사람도 새로와 지고 예기치 않던 뒷 감정을 남기게 간다. 차츰 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내가 하는 한가지, 한가지의 행동거지가 신경에 쓰이고 내 머리를 맴돈다. 또 미지의 세계, 미래라는 것에도 호기심이 생겨 금방이라도 실현 시

킬것 같은 부푼 마음에서 상상과 이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나 가끔 차갑고 딱딱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쳐 실망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하루는 잠미발, 새소리, 맑은 하늘 아래에서 즐겁게 보내다가도 다음날에는 컴컴한 하늘에 무서운 폭풍우가 우리를 공포의 수렁이로 몰기도 한다. 또 이때는 나만이 아닌 『너』를 생각하게 된다. 차츰 내가 고립되어 있음을 두려워 하여 『친구』라는 것을 찾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성』을 찾게 된다. 친구와 이성에게서 새로운 내자신을 발견하고 꼭 다시 깨어난 기분에 나날을 보낸다. 이 끝없이 되풀이, 아직 내게는 끝없이 보인다. 밤을 세워 편지를 쓰고, 비가 오는날 우산도 없이 밤길을 걸어 보기도 한다. 또 그날밤에는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쓸쓸한 가을날 바람에 날아가버리는 낙엽을 보고 눈물짓기도 한다. 미래를 향하여 이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이도, 암담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과 번민을 하는 이도, 순간적인 쾌락과 호기심에 탈선하는 이도 생긴다. 또 나처럼 이렇게 무엇인지 꼬적이는 이도 생기고 말이다. 사춘기? 글썽- 아픔이라고 할까? 그러나 이것도 미래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지?

그누가 아는가? 우리도 그 미운 오리새끼처럼 어여쁜 백조, 즉 참된 인간이 될지?

윗글은 내가 고2때 쓴 글이다. 그렇게 끝없게 보이던 고교시절이 다 지나고 대학

한국 비데오 및 선물센터
(병설: 한국 미용실)

White Center 에 위치한 한국 비데오 및 선물센터 내에 『한국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약품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성실과 경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 남 녀 헤어컷 \$ 7.00
- * 퍼마 \$ 25.00

※ 본 한국비데오 회원에 한해서 매 150.00불 상당의 테이프를 대여하였을 경우 1회 퍼마를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웁니다.

10023 ~ 16th Ave . S. W. Seattle, WA 98146

762-5510

생이 되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그 누가 짐작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 고통, 고민스럽게 여기던 사춘기 즉 고교시절을 생각해 한다. 몇배 어려운 대학교, 경쟁의 사회생활, 그리고 중대한 독립생활 보다는 그렇게 자유롭던 고교 시절이 그리기도 하다. 주위의 후배들을 본다. 빨리 자라고 싶어하는 그들, 빨리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나이 듦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 어른 흉내 그만두고 너희의 황금시대, 너희의 자유시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라고 -Lost youth is irrevocable

부모님의 보호아래 꿈의 나라를 펴보려고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귀찮은 편견같지만 너희도 언젠가는 그들의 품에서 떠나야 할 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떠난 후에는 그 품을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 성장이라는 것, 결국 자유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수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사춘기의 방황, 고민, 그리고 아픔이 즉 성장이라고-

미운 오리새끼같이 고통과 아픔을 받으며 방황한 그 시절이 성장에는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고-

아픔속에서 노력속에서 당신은 어느 하루, 자신의 성장을, 변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하여 저멀리 남쪽의 나라로 날아갈 시간이 올 것이다. 이순간이 오기까지는 순간의 아픔과 장애를 이기며 그 따돌림 받던 미운 오리새끼를 생각하자.

방혜성 (Hazel)

류 종합보험
ALL STATE
364 ~ 2450 (B)
362 ~ 2510 (H)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고포결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282-0022

월별 행사 계획표(1985년도)

월별	행 사 내 용
1 월	이사임원회. 오픈하우스. 영사관, 주청, 이민국 방문. 각신문사 및 방송국 예방.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2월	정기 이사 임원 합동회의. 조찬기도회(2월9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한국의날 행사계획. 회보발행.
3월	정기 이사 임원 합동회의. 3·1절 행사(3월2일), 영화상영(기금모금) 한국의날 행사계획.
4월	정기 임원회. 한국의날 행사. 회보발행.
5월	정기 이사임원 합동회의. Sea Fair 준비계획. 청소년 캠프준비 계획. 한인회장배 장년축구대회
6월	정기 임원회. 국제 민속 박람회 참가. 야유회 준비. Sea Fair 준비계획. 운동회 계획. 회보발행
7월	정기 이사 임원 합동회의. Sea Fair 준비계획.
8월	정기 임원회. Sea Fair 행사. 광복절행사 청소년 캠프. 회보발행 씨-뱅 양도시 야유회.
9월	정기 이사임원 합동회의. 선거관리 위원회구성. 운영기금 모금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10월	정기 이사 임원 합동회의. 교민을 위한 강연회. 청년단체 대표자 모임. 회보발행.
11월	정기 임원회 한인회 정기총회. 아리랑의 밤 준비계획.
12월	정기 임원회. 아리랑의 밤 행사. 1985년도 한인회 결산보고 작성. 회보발행.
비고	한인회 주소록 발행계획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운동회는 한글학교에 위촉실시토록 관계자와 협의계획

한인업소

공관 · 언론기관 및 각단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362-4500
시애틀 총영사관	441-1011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575-1320
동아일보 시애틀지사	244-9930
조선일보 시애틀지사	241-5144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838-3155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282-0022
코리언 저널	547-3729
한국외환은행	622-7821
대한선주	625-1960
한진해운	447-9422
회계사무소	
김종구 회계사무소	367-0655
손기남 공인회계사	340-1622
이규영 계리사	623-4181
정태수 공인회계사	762-1038

약국 · 병원 · 한방원

박약국	527-3010
백소아과	365-4533
박창식내과	624-5867
손대관치과	833-3770
이영주치과	775-3456
조병규치과	367-5570
Hoi W. Lee 치과	226-8151
김형기 산부인과	259-7293
로명재 산부인과	833-2580
엄도승 산부인과	872-3400
오덕주 산부인과	848-4453
이창준 산부인과	584-4355
윤안과	778-0333
홍인표 신경전문의	587-5747
무림한의원	747-3677
보혜사 한의원	762-8566
중국 한의원	628-0950
제일 한방원	483-8136

식당안내

경동장	625-0356
남대문 반점	248-2250
성일관	367-8837
신라회관	623-9996
영미정	623-3112
용궁	524-5525
한일각	587-0464
청도식당	367-9339
태화각	485-4020
하와이 BBQ	771-6311
Lander's 식당	624-3231
오리엔탈 BBQ	771-3700

보험

강성국 에퀴터블 보험	838-9218
김덕희 메트로폴리탄	565-0070
김철준 보험	546-6586
김해봉 종합보험	774-8508
류 종합보험	364-2450
박법신 종합보험	455-0650
정문언 종합보험	523-9111
최병택 에퀴터블	838-9218
최영세 에퀴터블	624-8380

여행사 및 선물센터

김여행사	624-2227
대한여행사	941-8866
유라시아여행사	581-0202
장여행사	523-7057
타코마여행사	582-0303
타코마한국여행사	588-0333
한국여행사	623-9290
롯데백화점	941-8353
오로라 선물센터	362-8617
신신백화점	582-2975
한국 선물센터	762-5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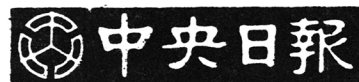
사진·인쇄·간판·표구·골동품

Ko's 사진관 & 비디오	775-0896
하바하바 사진관	475-6226
뉴모드 인쇄소	581-0060
부림 인쇄소	433-8811
쇼어라인 그래픽스	364-6630
Prolitho Inc.	622-7371
Top Print	775-7667
Kim's Art & 간판	474-4998
Park's 간판	762-5410
Bell Town Framing	625-0872
호박 고미술	343-5577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에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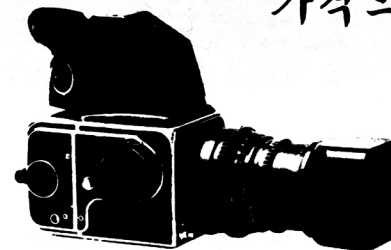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KO'S 사진관 & VIDEO

최신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섬길것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칼라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용 사진
- ◎필름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환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환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대여

전화 (206) 775-0896
대표 고광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통역 및 변호사

K.P. 번역원	682-3480
범아대서소	582-2538
방대한 변호사	525-7206
윤영일 변호사	582-7966
브라운 변호사	682-0565
크린톤 변호사	624-6831

식품점

그랜드식품	525-8334
김치마켓	475-6128
남대문 식품	643-4244
부한식품	588-7300
서울상회	588-9222
중앙식품	762-5620
아름마식품	941-1123
오대양식품	363-6850
오로라식품	542-6577
장미상회	941-8144
제일식품	774-4103
켄트상회	852-8388
탐스마켓	243-7040
한국식품	682-2992
현대식품	762-4792
Lee's produce	762-5220

부동산

김병관 부동산	365-4700
김성남 부동산	241-0213
김일영 부동산	874-4452
김준택 부동산	771-4985
김현중 부동산	774-3839
김혜련 부동산	778-2181
노명건 부동산	774-5200
노순열 부동산	622-6385
마가렛 한 부동산	365-5455
변종혜 부동산	223-8949
배기영 부동산	776-4797
수잔 김 부동산	392-8535
Sam 윤 부동산	878-3647
오화실 부동산	455-9571
양구현 부동산	632-6900
이상진 부동산	473-4519
이양남 부동산	363-0443
이종주 부동산	527-0555
이형 부동산	363-8509
이형석 부동산	523-5742
조명철 부동산	623-0966
조인 부동산	364-5966
채태용 부동산	588-4343
황수철 부동산	522-7566

자동차 판매 및 정비

김영일	
심재환	363-6110
천정민	632-2400
Ace Auto Body	838-1310
Alki Auto Body	935-9008
Choi's Auto	524-2960
First Auto Repair	762-5844
Kim's Auto	524-6006
Lee's Tire & repair	362-4449
Midway union	878-7500
101 Auto Body	525-5778
Skip's Body Shop	839-5193
Zion Auto Rebuilder	937-3111

학원 및 태권도장

제일음악학원	367-2273
O.K. 운전학교	775-1588
김 참피온 태권도	535-2615
Lee's 태권도	839-0580
Yi Brother 태권도	859-2682
윤 태권도	633-2273

건축·페인트·정원 및 각종수리

백광호 건축사무소	467-0900
진흥건설	451-0318
Won Construction	767-9372
송스 건축 & 페인트	525-7680
Park's Painting	762-5410
퀵스랜드스케이핑	821-1960
박정원사	433-0820
김목공소	771-8019
자니전파사	241-5144
쿨러냉동	941-9447
파이프 수리	363-5383
카페트 수리	475-9254

비데오·당구장·꽃집·미장원·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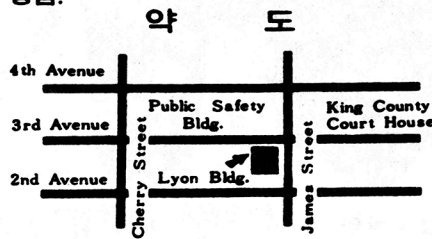
Apollo 비데오	546-4222
King 비데오	624-9815
한국 비데오	762-5510
서울 당구장	545-9878
승리 당구장	588-0679
한국 당구장	767-3101
세계파아노사	365-5540
성문서적	763-2058
디모인스 꽃집	824-5920
U-Villige 꽃집	525-7422
서울 미장원	241-0776
성 미용	259-4724
캐주얼 88	778-1541
한의상실	941-1553
서울 뷰티	241-5403
아모레 화장품	542-7138
플라 화장품	584-2584

※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발전시킵시다!

* 잘못된채 되었거나 누락된 업체는 한인회로 연락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K.P. 번역원

- *사건조사, 법률처리 알선
- *유능한 변호사 알선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Suite 303 Lyon Building Seattle, Washington 98104
607 Third Avenue (206) 682-3480

저렴한 가격·신선한 식품·친절한 봉사

그랜드 식품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정육전문 취급점



★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박약국
★ 세애틀 최초의 한국서적센터

귀국선물센터 오픈!

8512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3748

LEE S TIRE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터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2-4449

교회안내

교회명	전화	담임목사
※ 브리머튼 한인장로교회	377 ~ 2744	이정문
※ 에버렛 베다니한인교회 에버렛한인교회	355 ~ 6377 483 ~ 6074	최창효 고필균
※ 렌튼 렌튼한인교회	271 ~ 5462	김경원
※ 씨애틀 빌립보교회 서부영생교회 성복음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중앙선교교회 씨애틀서부한인교회 씨애틀소망교회 씨애틀중앙장로교회 제칠일안식일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장로교회 씨애틀한인장로교회 한인제일감리교회 한인침례교회 평강장로교회 한인형제교회 워싱턴한인루터교회 시애틀천주교회	771 ~ 7202 767 ~ 0693 367 ~ 1490 246 ~ 7461 546 ~ 1612 932 ~ 2553 789 ~ 8087 763 ~ 8952 854 ~ 1125 226 ~ 7864 774 ~ 1885 523 ~ 2728 367 ~ 2178 542 ~ 4391 365 ~ 3387 365 ~ 6691 242 ~ 7782 365 ~ 1480	최인근 한상국 윤한두 이현규 박성수 이명택 성윤경 정연발 유제상 김종원 박영희 김상구 이창수 정하경 최태원 최용걸 김동진 조병기
※ 웨더럴웨이 에덴장로교회 장로교회 한인선교교회	941 ~ 9684 847 ~ 8438 922 ~ 1838	김성권 나병주 송천호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취호

한인회보 1985년 제1호

발행인 : 오준걸

편집인 : 박법신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051 34th Ave. N.E. # 210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편집 후기』

업무량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발행기로 한
회보도 예상외로 시간을 끌었다. 한국일보사에
서 시도한 한글식자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발행 할
수 있는것에 감사드린다. 한정된 지면 관계로
여러분의 글과 광고를 다 수록 못한것에 대해 지
면을 통하여 사과 드린다. 금년 한해 좀더 짜임
새 있는 회보가 되기를 노력해야겠다.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택스
- ※ 세무상담
- ※ 중소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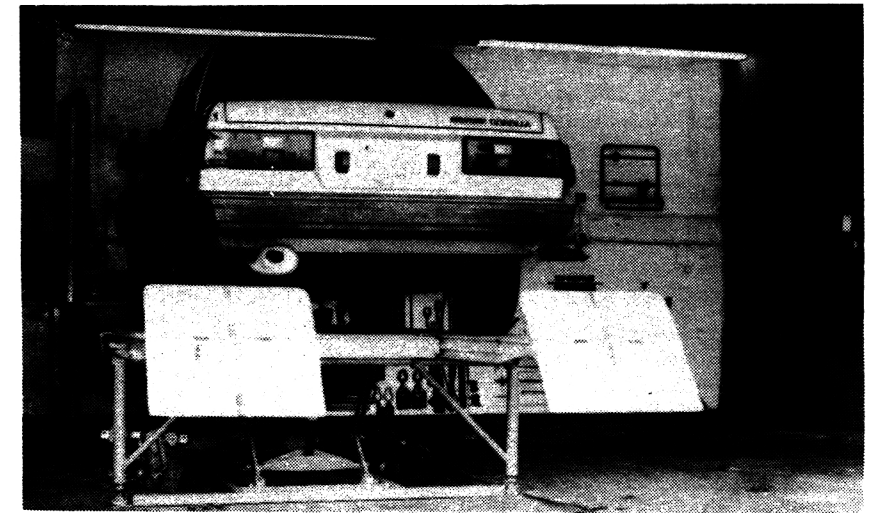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101 자동차 바디숍

완전무결은 101자동차 바디숍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고 발생시 휘어진 차체를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하여 101 바디숍에서는 최신 장비
와 충분한 기술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자동차를 완전하게 고쳐드립니다.



INSURANCE WORK • BEST 배인프 • UNIBODY WORK • 101 바디숍

1005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Phone: 525-5778(공장), 789-2655(집) 대표 허남일



제일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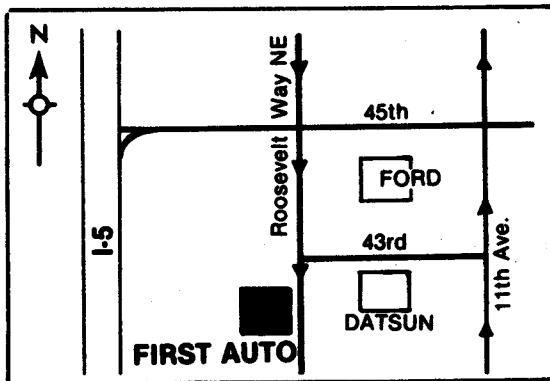
FIRST AUTO SALES & LEASING

안녕하십니까?

198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께 인사 드리웁니다.

저는 날로 발전해가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University 지역에 새로이 『제일 자동차』를 개업하여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취급하고 보다 좋은 구매 방법과 가격으로 교포 여러분께 공급하고자 하오니 일차 방문하시어 차량 구입에 대한 일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 하겠아오며 분명히 만족한 결과를 드리게 될것을 확신 합니다.

천정민 올림



4301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05
(206) 632-2400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